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515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년 8 월

석사학위논문

허난설헌 시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낭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허난설헌 시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A study on the Taoism thought in Heo-Nanselheon's poetry

2015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낭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허난설헌 시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낭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낭 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상 원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유 육 례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 중 (인)

2015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차

ABSTRACT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과 방법 …… 1
2. 연구사적 고찰…… 4

Ⅱ. 허난설헌의 생애와 도교사상…… 8
1. 허난설헌의 생애 …… 8
2. 허난설헌의 도교사상…… 14

Ⅲ. 도교사상과 한국문학…… 16
1. 도교의 발생과 사상…… 16
2. 한국문학에서의 도교사상 …… 19

Ⅳ. 허난설헌의 시와 도교…… 21
1. 허난설헌의 「유선시」…… 21
2. 선계를 향한 꿈의 이미지 …… 24
3. 도교적 선세계의 이미지 …… 30

Ⅴ. 결론 …… 4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4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Taoism thought in Heo-Nanselheon's poetry

Lang Yan

Advisor: Prof. Kim Su-Jung, Ph.D.

Depar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osun University

Heo-Nanseolheon is a genius-like poetess who is representative of the Chosun Dynasty. She had created her own poetry style based on her unique perspective and outsight which are used for the phenomena observation of herself and her family. She was talent to exploit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then used the poetry to reflect the lives of herself and her family. Typically, she had conveyed her thought via a background of the ideal society, and created her own poetry world.

In the middle era of the Chosun Dynasty, there a few number of woman used their fine sentiments to represent the plaintive lives by the way of poetry. Heo-Nanseolheon is one of the famous poetess during that period, and the poetry is the way used by Heo-Nanseolheon to reflect the sadness and suffering of her live. In stead of the Chosun Dynasty, her poetry was very popular in th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cient China at first. This is because her poetry not only described her own live but also reflected the sadness of current society and the suffering of females.

Generally in the Chosun Dynasty, most of the poetry created by literati only focused on the female's longing and emphasized the obedience of Confucianism. However, Heo-Nanseolheon wrote the poetry that is one step further than others to surpass the Confucianism without being bounded by the current social rules. Her poetry, on the other hand, described the immortal world of Taoism according to her life feeling which cannot be realized in the reality.

Heo-Nanseolheon was affected by her father, namely Heoyeop, and read a lots of literatures related to immortal because her father were an enthusiast of Taoism. Behind such a reason, Heo-Nanseolheon preferred to use poetry to describe the immortal fictions. Her poetry can illustrate a beautiful scene, including the amusement, pastime, marriage, and loneliness of the immortal world. And this kind of immortal world represents freedom and happiness.

In Heo-Nanseolheon's poetry, she used the Taoist thought to decorate her their inner pain in the way of sublimate immortal world, and expressed her eager hope freely. At the same time, she expressed the longing and missing feeling of her departed child in the poetry and could have a reunion with her husband via dreams. Her poetry thus can be free of the social reality that soars beyond the time and space. The fantasy of immortal world is used to idealize the sadness and suffering; therefore, her poetry is a right media to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xpress her feeling.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허난설헌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여류시인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가족들의 질곡을 그녀만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분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시를 창작했다. 그녀는 문학적 상상력을 사용하여 외부세계에서 발생하는 가족과 자신의 삶을 시적 매개물로 사용하여 그것을 자신의 내면적 이상세계로 전이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세계를 창조했다. 이러한 시적 연금술의 과정은 그녀가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시인으로 불리어질만한 토대를 구축하도록 만들었다.

한시는 조선시대에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문학의 장르를 형성한 분야이다. 하지만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형성시킨 한시분야에 여성이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하여 우리 문학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선중기에 소수의 여성들만이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으로 자신의 삶의 애환을 시로 드러냈다. 이러한 여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허난설헌이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삶의 애환과 고독을 분출시키는 통로로 이용했다. 우리는 이러한 여성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삶과 작품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허난설헌의 작품은 조선보다는 중국에서 먼저 알려질 정도로 한류열풍을 일으킨 신지식인이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허난설헌 만큼 중국에 알려진 인물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조선에서도 그녀의 작품은 애송되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삶만을 시에 노래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애환과 당시 다른 여인들의 삶과 고통을 다양한 각도로 다채로운 시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허난설헌은 조선사회에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한시의 세계를 여성의 공간으로 변모시켜 여성문학의 태동에 토대를 형성했다. 여성들의 가사문학과 그녀들의 한시이다. 이런 한시들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여성문학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대부분 여성들의 한시 작품은 내용이나 소재에서는 여성의 그리움과 시집살이 유교의 덕목을 강조하는 시들이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허난설헌은 한 발짝 나아가서 유교적 규범과 속죄에서 벗어난 시상에 얽매이지 않고 도교의 신선세계로까지 확장시켜 그녀의 삶의 고독한 감정을 현실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음을 알고 선계라는 세계로까지 확장시켜 시를 쓰게 된다. 그래서 그녀의 시는 꿈을 꾸는 이미지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조선시대에 여성들은 성리학이 들어온 이후에 그 사상의 영향으로 제도적으로 억압을 받았다. 성리학의 삼종지도(三從之道)와 칠거지악(七去之惡)은 여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였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성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회였다. 이능화는 “여자는 오직 술이나 음식을 의논할 뿐이며 옷이나 바느질하고 물이나 길으며 절구질이나 잘하면 넉넉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 당시는 한문이나 한시 교육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나 도우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차별화된 사회였다. 그래도 양반에 속하는 여성들은 『書經』, 『史記』, 『論語』, 『詩經』, 『小學』, 『女史書』를 대충 읽어 그 뜻이나 통하고 여러 집안의 성씨, 선대의 족보, 역대의 나라이름, 성현의 이름자나 알면 될 뿐이지, 함부로 글을 지어 외간에 퍼뜨려서는 안 된다”[1]고 하였다. 이러한 양반계급의 사대부여성들은 직접 서당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친정부모들에게 서신을 교환할 정도의 학식을 갖추었다. 여성은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다. 따라서 여자들은 글이나 시를 짓는 것 자체도 생각할 수 없는 닫힌 사회였다.[2] 이런 시대에 태어난 허난설헌은 그래도 사회의 제도적 속박 달리 개방적인 집안이어서 글을 배울 수 있었다. 그녀는 삼당파 시인 중의 한사람인 이달로부터 시작(詩作)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허난설헌의 작품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여성 한시 작품의 폭넓은 흐름을 수용하여 개별 작품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허난설헌의 생애를 검토한 이후에 그녀의 작품을 세밀하게 음미하여, 그녀의 사상과 작품의 위대성을 한 단계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필자는 이 연구에서 허난설헌의 생애, 도교사상의 발생과 사상, 한국문학에서의 도교사상, 허난설헌의 유선시, 허난설헌의 시와 도교, 선계를 향한 꿈의 이미지, 도교적 선세계의 이미지 등을 연구해 볼 것이다.

---

1) 이능화, 『조선여속고』, 한남서림, 1927, 132면.
2) 여성의 시 언어는 남성의 시 언어와 다르다. 여성의 언어는 이제까지 밖에서 주어졌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터져나온다. 여성의 언어는 본래적으로 위반의 언어인 것이다.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 6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필자는 현존하는 허난설헌의 한시문 210편 가운데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시들을 선정할 것이다. 이러한 시들을 선택한 이후에, 필자는 허난설헌의 생애와 성장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제 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한 이후에, 지금까지 허난설헌을 연구한 국내의 연구동향, 기존의 연구동향을 검토해 볼 것이다.

제 2장에서는 허난설헌의 삶을 먼저 검토한 이후에, 도교가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만의 독특한 도교사상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도교사상과 한국문학을 검토한 이후에, 도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한국문학에 도교사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허난설헌의 작품에 제시된 도교 관련 이미지들인 선계를 향한 꿈의 이미지, 도교적 선세계의 이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그녀의 도교사상이 결과적으로 어떤 귀착점에 도달하여 그녀가 우주와 하나로 통합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추적해 볼 것이다.

요컨대 필자는 이 연구에서 허난설헌의 작품에 제시된 도교 관련이미지들을 검토한 이후에 그녀가 우주와 통합되는 과정을 그녀의 작품을 통해서 검증해 볼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사적 고찰

세상의 인구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선시대의 여성은 이분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양분해서 나누었던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여성은 보통 남성에 비해 우수한 점이 많지만, 남성에 비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 시대에 허난설헌은 여성의 섬세함과 고도의 상상력을 갖춰 남성들이 노래하지 못한 그녀만의 독특한 세계를 노래했다.

허난설헌의 작품연구는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3] 더불어 조선중기시대

---

3) 지금까지 허난설헌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곽선희,『許蘭雪軒의 遊仙詞 考察』,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9.
김경진,『許蘭雪軒의 遊仙詩에 나타난 幻想性 考察과 指導方案 硏究』, 중앙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10.
김계숙,『許蘭雪軒 硏究: 漢詩를 中心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덕년,『許蘭雪軒의 詩에 나타난 色彩語 硏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金明姬,『許蘭雪軒 詩文學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김명희,『허난설헌의 문학』, 집문당, 1987.
김명희,『허부인 시 새로 읽기』, 이회문화사, 2002.
김성남,『허난설헌』, 동문선, 2003.
김성남,『허난설헌 시 연구』, 소명출판, 2002.
김상남,『許蘭雪軒의 漢詩 硏究』, 全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1.
金榮朱,『許蘭雪軒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金用淑,『許蘭雪軒의 꿈과 눈물』,『숙대학보』2, 1956.
金用淑,『許蘭雪軒의 꿈과 눈물』-작품을 통한 그의 인물 연구, 숙대학보 2 1958.
김인정,『許蘭雪軒의 漢詩 硏究 : 僞作是非및 作品 再解釋에 主眼하여』, 단국대학교, 2002.
김종필,『許筠과 許蘭雪軒의 遊仙詩 比較硏究』, 연세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11.
金智勇,『歷代女流漢詩文選』, 大洋書籍, 1973.
김현정,『李淸照와 許蘭雪軒 比較 硏究』, 공주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1997.
남병윤,『許蘭雪軒의 漢詩 硏究』, 啓明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2.
박영호,『許筠 文學 硏究: 道敎思想을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1.
朴堯順,『許蘭雪軒과 閨怨歌攷」』,『湖南文化硏究』제 2집, 전남대호남문화연구소, 1964.
박윤자,『許蘭雪軒 詩文學 硏究 : 感興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박재완,『許蘭雪軒(1563-1589)과 梅窓(1573-1610) 漢詩 比較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朴鍾和,『許蘭雪攷』,『성균관大』, 성균誌, 1950.
서정혜,『許蘭雪軒考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1.
손찬식,『許蘭雪軒과 許少雪軒의 遊仙詞 比較 硏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서정혜,『許蘭雪軒考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1.
손찬식,『許蘭雪軒과 許少雪軒의 遊仙詞 比較 硏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유임순,『허난설헌 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4.
윤영주,『한중 여성 시가 비교연구: 허난설헌 구숙진의 작품을 중심으로』, 江南大學校 碩士論文,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여성들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허난설헌의 작품은 작품의 문학성에 있어서 조선시대에 가장 훌륭한 여류시인라고 칭할 만하다. 이는 허난설헌을 필두로 하여 다수의 조선시대 여성들은 여성문학사의 큰 산맥을 형성하며, 바로 허난설헌이 그 태동의 시작점에 서 있다. 이러한 것은 허난설헌이 조선시대 여성문학사의 큰 장을 태동시킨 특징적인 인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허난설헌의 문학세계에서 유선문학(遊仙文學)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편이다. 허난설헌의 유선사와 다른 시인의 유선사 비교연구도 상당히 연구되었다. 하지만, 허난설헌의 작품을 도교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연숙(張蓮淑)은 허난설헌에 대한 최초의 학위논문으로, 그녀의 석사학위 논문「허난설헌의 시에 관한 연구」에서 허난설헌의 작품을 '수사의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논문에서 韻의 조직과 평측에 대하여 論한 내용이 특이했다.

허미자는「허초의의 유선사에 나타난 이미지 연구-물·공기의 分析詩論」에서 난설헌 시를 서양이론에 접목시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였으며, 시에 나타난 이미지를

2007.
이숙희,『허난설헌 시론』, 새문사, 1987.
이숙희,『허난설헌의 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이연신,『許蘭雪軒의 漢詩硏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9.
이종은,『한국시가상의 도교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8.
장연숙,『허난설헌의 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0.
장인애,『허난설헌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장진, 『許蘭雪軒論』,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9.
정연봉,『許蘭雪軒 漢詩의 硏究』, 高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79.
차옥덕,『許蘭雪軒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최승옥,『許蘭雪軒의 漢詩 硏究』, 조선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02.
최정은,『허난설헌 한시 연구 : 상처와 치유양상』, 국민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10.
최혜진,『여성문학』,『허난설헌, 욕망의 시학』, 2003.
하영택,『한국민요에 나타난 도교사상』, 한양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1987.
한성금,『許蘭雪軒 漢詩의 美學』,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허미자,『許蘭雪軒 硏究』, 誠信女大出版部, 1984.
홍성헌,『李白 詩의 道敎思想 硏究』,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Wang Li-Li,『許蘭雪軒과 許小雪軒의 游仙詞 比較 硏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밝혀보려 하여 본격적으로 난설헌의 시에 대한 심층분석의 합리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둔다.

이종은(李鐘殷)은 박사학위 논문 「한국시가상의 도교사상 연구」에서 허난설헌의 작품을 주로 신선사상(神仙思想)과 선계음영(仙界吟詠)의 관점으로 분석했다. 蘭雪軒의 7首 시를 들어 '그의 詩는 한마디로 俗人의 羨仙 의 詩 , 望仙의 詩가 아니라 仙人 蘭雪軒이 仙界를 마음대로 逍遙한 仙界의 記錄이다' 하였다. 또한 그는 이 작품이 차종(此種) 유선 (遊仙)의 대교향악이요, 압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문학의 사상적 배경을 도교사상 및 신선사상에 두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동양사상의 관점으로 허난설헌의 「유선사」87수를 분석했다.

이연신(李淵信)은 석사학위 논문 「허난설헌의 한시연구」에서 신선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허난설헌의 작품을 1)애정시(愛情詩) 2)규원정한시(閨怨情恨詩) 3)우국시(憂國詩) 4)생활정감시(生活情感詩) 5)신선시(神仙詩)로 나누고 고찰하여 '시정(詩情)의 특이성'에 주목했다.

김명희는 박사학위 논문 「허난설헌 시문학 연구」에서 허난설헌 작품의 수사적 특성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의 문학과 몽환의 시학에서는 삶의 체념과 미학 그리고 환상의 영역에 까지 확장시켰고 허난설헌 시의 美學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정연봉(鄭然峰)은 석사학위 논문 「허난설헌 한시의 연구」에서 '학문의 연원'을 특징적으로 강조했다. 蘭雪軒의 詩에 대한 是非를 발단.발전.전개과정에 따라 年代와 評을 再定立하여 허구임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그는 "문사文士들의 평"이라는 항목과 작품의 연구에서 주제의 분석, 시어의 분석, 문장의 기교 및 특이한 표현 등을 특징적으로 분석했다.

장진(張眞)은 석사학위 논문 「허난설헌론」에서 허난설헌의 작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허난설헌의 연보를 정리했다. 그리고 장진은 논문에서 허난설헌의 시를 1) 忍從과 克己의 詩 2) 超世的 理想詩 3) 女性的 感傷詩로 나누었다. 시체별(詩體別)를 제시하고 있다.

한성금은 박사학위논문 「許蘭雪軒 漢詩의 美學」에서 허난설헌의 시세계를 연정시, 유선시, 풍유시로 분류하고 고찰하였다. 그녀는 허난설헌 시의 미학을 1)감춤의 미학 2)객관적 대응물로의 대조 3)유기적으로 융합된 영상미 4) 함축적 시와 창출미로 나누어서 연구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정혜(徐廷惠)는 석사학위 논문 「허난설헌고구」에서 許蘭雪軒의 仙界詩는 現實의 도피리기보다는 自矜이요, 傲慢이다. 비록 꿈 속이기는 하나 閨房을 비웃으며 거부했던 理想鄕이다. 당시(唐詩)의 영향을 받은 난설헌의 시를 예증했다. 그녀는 허난설헌의 작품을 한(恨)의 문학, 선仙의 문학으로 분류한 이후에 비교적 작가연구와 작품연구의 전고를 충실히 하였다.

김상남(金相南)은 석사학위 논문 「허난설헌의 한시 연구」에서 신선류, 애정류, 풍자류, 전쟁류, 자연류, 회고류 등으로 허난설헌의 작품을 분류하여 그 주제들을 분석을 하고 있다.

김용숙은 「허난설헌의 꿈과 눈물」에서 허난설헌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여인의 눈물과 한이며, 또한 꿈과 선계의 시어가 많음이 특징이라 하고, 허난설헌의 도피처는 신선세계임을 밝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허난설헌의 많은 연구논문들을 면밀하게 고찰해보면서 그녀의 작품을 작품에 제시된 도교사상을 세밀하게 분석해 볼 것이다. 이는 허난설헌의 문학사적 가치를 보다 더 명징하게 규명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허난설헌의 생애과 도교사상

1. 허난설헌의 생애

허난설헌은 1563년(明宗 18年)에서부터 1589년(宣祖 22年)까지 27세의 나이로 짧은 일생을 살았지만 주옥같은 많은 시를 남긴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이다. 그녀의 이름은 초희(楚姬)이고 자는 경번(景樊)이다. 그 당시에 일반여성들은 이름조차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허난설헌은 자와 이름까지 가졌던 명문 사대부가문 출신의 여성이다. 이는 그녀가 집에서 다양한 책을 탐독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장하여 자신의 사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배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허난설헌은 뛰어난 석학이었던 초당(草堂) 허엽(許曄 1517-1580)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허엽은 화담 서경덕과 이황의 제자였으며, 청렴결백한 학자이었다. 그는 조선명종 시기의 충신으로 부제학 관직까지 올랐다. 그는 이전에 성균관 대사성, 사간원 대사간, 동지중추부사 등 조정 요직을 맡은 적 있다. 또한 그는 당시 유명한 학자문학자였다. 그는 저명한 문인 서경덕(徐敬德)의 제자로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568년, 허엽(許曄)은 부사로 명나라에 출사하였다. 허난설헌의 어머니 김씨는 강릉 김광철(金光轍)(1493-1550)의 딸로 역시 명문 규수였다. 김씨부인에게서 태어난 허봉, 허난설헌, 허균은 모두 뛰어난 시인이었으나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충돌했으며, 장수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부친 허엽을 비롯해서 그의 세 아들 허성(許筬 1548-1612), 허봉(許篈 1551-1588), 허균(許筠 1569-1618)과 딸 허난설헌(許蘭雪軒)은 후대인들이 '허씨오문장가(許氏五文章家)라고 칭할 만큼 다방면에 걸쳐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허난설헌의 형제들은 출중한 문장가로서 그 당시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었다. 그녀의 첫째오빠는 허성(許筬:1548-1612)1)이며, 둘째오빠는 허봉 (許篈:1551-1588)2)이고, 그리고 동생은 허균(許筠:1569-1618)3)이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했었고 뛰어난 글재주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들이다. 그녀의 큰 오라버니 허성은 일본에 다녀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당파의 이익을 떠나 소신대로 보고한 지조 있는 학자이며, 훗날 이조판서에 오른 인물이다. 작은 오라버니 허봉은 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재적 재능을 지닌 문장가로 허난설헌에게 학문적 지도를 해주었다.

우리는 현재까지 일반 독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동생허균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동생 허균은 조선시대에 유명한 문인이며 학자이고,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 성소(惺所), 또는 백월거사(白月居士)이다. 그는 남달리 영민하고 재능이 출중하여 1597년에 장원급제했다. 허균은 1609년과 1614년, 그리고 1615년까지 세 번이나 명조에 출사했다. 그래서 그는 중조 양국문화의 교류에 공헌을 했고, 중국 명나라시기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입지를 굳혔다. 허균은 누이인 허난설헌의 학문과 시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 누이의 천재적 재능을 자신의 저술 속에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난설헌집(蘭雪軒集)』과 그녀에 관한 몇몇 자료는 허균에 의해 보존된 것들이다. 이러한 허균의 공로로 우리는 현재 허난설헌의 시들을 만나볼 수 있다.

동생 허균은 『성옹지소록』에서 자신의 집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우리 집이 가락왕비로부터 性(성)을 얻은 지가 거의 7백년이 되었다. 고려 초에 들어와서 시조께서 양천을 채읍으로 했기 때문에 드디어 양천으로 관향을 삼았다. 고려조 5백년이 끝나도록 과거 급제가 잇달았고, 벼슬이 혁혁하여 정승된 사람이 11명, 제추정승아래의 벼슬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대신(大臣)이 6명, 학사가 9명, 부마가 5명이었다. 원나라에 들어가 벼슬한 분이 2명이고 군(君)에 봉해진 분이 14명인데, 대(代)마다 각각 문장과 명인이 있었다.[4)]

당대 문벌가에서 자란 허난설헌은 시를 다루고 짓는 재주가 남달리 뛰어났고 용모도 출중했다. 허난설헌은 8세에 유명한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을 지어 여신동으로 불릴 정도로 시문에 능했다.

> 우리 선대부(先大夫)의 문장과 학문, 절행(節行)은 사림(士林)에게 추중(推重)되었다. 백형(伯兄)은 경전을 전해 받았고, 문장도 간략하면서 무게가 있었다. 중형(仲兄)은 박학(博學)하고 문장이 매우 고고해서 근래에는 견줄 사람이 드물다. 누님의 시는 더욱 청장(淸壯)·준려(峻厲)하여 개원(開元)·대력(大曆) 연간의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명

4) 허미자, 『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출판부, 2007, 16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망이 중국에까지 전파되어 천신사부(薦新士夫)들이 모두 칭찬한다.[5]

허난설헌은 이렇듯 개방적이고 선구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글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허난설헌은 오빠 하곡의 친구인 삼당파 시인중에 한 사람인 이달(李達)로부터 시작(詩作)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은 훗날 허난설헌이 시를 짓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허균은 성소부부고에서 형과 누님의 문장은 가정에서 배운 것이며, 선친은 젊었을 때 모재(慕齋) 김안국에게 배웠다. 慕齋의 스승은 허백당(虛白堂) 성현인데, 성현은 자기 형 성간과 괴애(乘崖) 김수온에게 배웠다. 두 분은 모두 태재(泰齋) 유방선의 제자이고, 유공은 문정공(文靖公) 이색의 득의한 문인이었다.[6]

그 밖에도 초당의 스승으로는 장음(長吟) 나식과 화담(花潭) 서경덕이 허균의 기록에 남아 있다. 특히 허난설헌의 문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서경덕이다. 허균은 아버지 초당에게서 서화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옹지소록」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아버님께서는 화담 선생에게 가장 오래 배우셨다. 일찍이 칠월에 선생의 집으로 찾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가 화담으로 간 지 벌써 엿새째라고 했다. 곧 화담 농악으로 뒤따라 가셨는데, 가을 장마로 물이 한창 넘쳐나서 건널 수가 없었다. 저녁 때 여울물이 조금 줄었으므로 겨우 건너가셨더니, 선생은 한창 거문고를 타면서 높게 읊조리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저녁밥 짓기를 청하자, 선생은 '나도 먹지 않았으니 함께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머슴이 부엌에 들어가 보니 솥 안에 이끼가 가득하였다. 아버님 역시 이상하게 여기시고 까닭을 물으셨다. 선생이 이르기를, "물이 넘쳐서 엿새 동안 집사람이 오지 못

5) 『惺所覆瓿藁』「惺翁識小錄下」 제24권, 설부(說部)3 허균, 『허균전집』「惺所覆瓿稿」권2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2, 228면. "我家先大夫文章學問節行推重於士林, 而伯兄傳經訓文章亦簡重. 仲兄博學爲文章甚高古 近代罕比. 姊氏詩尤淸壯峻麗, 其高出於開元大曆, 名播中州, 薦紳士皆傳賞之."

6) 許筠, 『惺所覆瓿藁』 卷之十 「答李生書」
兄姊之文, 得於家庭 而先代夫少學於慕齊 慕齊之師成虛白俔學於其兄侃 及金乘崖守溫 二公皆柳泰齊之弟子 柳公是文靖公得意門人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했다. 그래서 나도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으니 솥에 이끼가 났을 것이다"고 하였다. 아버님께서 선생의 얼굴을 쳐다보셨는데 굶주린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7]

허난설헌은 이처럼 온 가족이 학문에 정진하는 가풍을 가진 가정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시집가기 이전까지의 생활이 조선시대 어떤 여성보다도 행복했던 시절로 보여 진다.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문을 사랑하는 집안의 가풍과 아버지와 오빠들의 자애로운 사랑을 받았다.

허난설헌은 조선 선조 10년(1577년)에 열다섯의 나이로 안동김씨 서당 김성립(金誠立)에게 시집을 갔다. 그의 시댁은 안동 김씨로 유명한 문벌 집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혼인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남편 김성립도 명문가 출신이지만 재능이 허난설헌보다 뒤떨어져 사유나 재능 면에서 서로 상통한 점이 많지 않았다. 그는 난설헌의 문장과 학식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결혼 초기부터 글공부를 이유로 외박이 잦았으며 부부간의 금슬도 원만치 못했다. 또한 김성립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유곽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했다. 난설헌이 세상을 뜬 다음해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죽을 때의 벼슬도 점9품 홍문관에 불과하였다.[8]

허난설헌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못하였다. 아들이 과거에도 오르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니 똑똑한 며느리가 곱게 보일 리 없기 때문이다.[9] 설상가상으로 허난설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지만 모두 요절을 겪었고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을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허난설헌은 친정이 몰락해 오라버니와 동생이 귀양 가는 모습을 홀로 지켜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詩作으로 달래어 섬세한 필치와 여인의 독특한 감성을 노래하는 것 밖에는 없었다.

허난설헌의 삶은 그녀가 김성립에게 시집을 간 이후부터 그녀의 삶은 크게 변화하여 이전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질곡에 빠진다. 그녀는 당시 사회의 유교적 윤리와 여성을 옭아 매는 제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녀는 세 가지 한(恨)을 이야기 했는데 중국이 아닌 조선에서 태

7) 허미자,『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22-24면.
8) 김명희,『난설헌의 문학』, 집문당, 1987, 487면.
9) Wang Li-Li,『許蘭雪軒과 許小雪軒의 游仙詞 比較 硏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9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난 것과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난 것, 이백이나 두목지 같이 출중한 남편을 만나지 못한 것을 자신의 세 가지 한이라고 통곡하였다.[10] 만약 허난설헌이 조선이 아닌 명나라와 같은 대국(大國)이나, 남자로 태어났거나, 혹은 훌륭한 남편을 만났다면, 그녀는 자신의 시적 재능을 마음대로 펼쳐서 아주 많은 시를 유산으로 남겨 놓았을 것이다.

허난설헌의 문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둘째오빠 허봉이다. 허봉은 류희춘(柳希春)의 문인이며 18세에 생원시에 장원하였다. 벼슬이 이조좌랑(吏曹佐郞)에 이르렀으며 동인의 거두가 되기도 했다. 허봉은 천재적 재능을 지닌 문장가로서 허난설헌에게 많은 학문적 지도와 격려를 해주었으며 특별히 동생 허난설헌과의 우애가 아주 깊었다. 허봉은 여성들이 글을 배우지 못하는 시대였지만, 여동생 허난설헌을 자기의 글벗인 손곡(蓀谷) 이달(李達)에게 소개하여 시를 배우도록 만들었다. 여동생 허난설헌에 대한 학문적 배려와 기대는 허씨 집안의 개방적이고 선구자적인 가풍을 짐작케 한다. 허봉이 지은 <하곡 시초(荷谷詩抄)>에는 그가 여동생 허난설헌에게 지어보낸 시 <기매씨(寄妹氏)> 2편과 <송필매씨(送筆妹氏)> 1편이 있다.

仙曹舊賜文房友　신선나라에서 예전에 보내 준 문방친구
奉寄秋閨玩景餘　가을 규방에 보내 주어 경치를 그리게 한다.
應向梧桐描月色　오동나무를 바라보며 달빛도 그려보고
肯隨燈火注蟲魚[11] 등불을 따라다니며 벌레나 물고기도 그려보렴.

허봉은 이 시에서 출가하여 외롭게 살고 있는 여동생 허난설헌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허씨 집안 형제들의 우애와 학문적 격려는 매우 높았다. 허봉은 또한 이미 출가한 여동생에게 끊임없는 학문적 지도와 배려를 계속했다.

이 『杜律』시집 1冊은 邵文端 公寶가 베껴 기록한 것인데, 虞註에 비해, 간단명료하

10) 최정은, 「허난설헌 한시연구-상처와 치유양상」,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1) <송필매씨(送筆妹氏)>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고 쉽게 읽을 수 있다. 萬曆 甲戌年에 내가 王命을 받들고 축하 사절로 갔다가, 여정 중에 通州에서 머물렀다. 우연히 陝西省의 擧人 王君 之符를 만나서 하루가 다 가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헤어지면서 이 책을 나에게 주었다. 내가 책 상자에 보물처럼 간직한 지 몇 해가 지났다. 이제 너에게 주니, 한 번 읽어보아라. 내가 권하는 깊은 뜻을 져버리지 않는다면 드문 두보의 소리가 누이(漢代 여류 시인 班昭에 비유)의 손에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12]
>
> -만력 임오년(1582) 봄 하곡(荷谷)이 쓰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허봉은 허난설헌의 시 창작에 깊은 격려와 충만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허봉은 여동생이 걸출한 여류작가가 되기를 희망했던 것 같다. 허난설헌이 갑산(甲山) 유배길에 있는 하곡(荷谷)을 그리며 지은<송하곡적갑산(送荷谷謫甲山)>과 <기하곡(寄荷谷)>, <차중씨견성암운(次仲氏見星庵韻)>은 모두 허봉과 주고받은 시이다. 허봉은 허난설헌에게 학문의 길을 이끌어준 스승과 친구의 역할을 했다. 허난설헌이 유일하게 시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은 허봉이었다.

허난설헌은 이런 생활 속에서 문학 창작에 몰두했고 신적 존재에 열광하면서 심리적인 해방을 얻고 암흑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려 했다. 허난설헌은 선조 22년(1589) 27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유언으로 자신이 남긴 많은 작품을 불태워 달라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 동생 허균이 그녀의 작품을 정리하였고『蘭雪軒集』이 그녀의 유고집으로 남아있다. 이 책은 당시 중국,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크게 애송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허난설헌의 생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563년 출생에서부터 1577년 김성립에게 시집가기까지이다.

둘째, 출가 후 불행한 가장 생활을 했던 시기이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남편과의 불화 관계는 허난설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의 원천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친정 가문의 몰락과 자신이 그로 인해 2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시기

---

12) 許筠,「題杜律卷後奉呈妹氏蘭雪軒」,『荷谷集』.“杜律一冊, 邵文端公寶所鈔, 比虞註, 尤簡 明可讀. 萬曆甲戌, 余奉命賀節, 旅泊通川, 遇陝西擧人王君之符, 接話盡日, 臨分贈余是書. 余寶藏巾箱有年. 今輟奉. 汝一覽, 其無負余勤厚之意, 俾少陵希聲復發於班氏之手可矣. 萬曆壬午春, 荷谷子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13]

2. 허난설헌의 도교사상

허난설헌의 부친 허엽은 화담의 문인으로 그의 학문을 이어 받았고, 허난설헌은 가전으로 도교사상을 익혔다. 허난설헌의 형제들은 부친 허엽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도교사상을 접하며 성장했다. 허난설헌은 이러한 가풍으로 인하여 도교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허난설헌의 시의 사상적 배경은 유선사상(遊仙思想)에 기인한 선시가 대부분이다.

허난설헌은 도교사상의 신선사상을 애호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신선도 및 신선화를 수록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 그녀는 결혼을 한 이후에 불행한 결혼생활로 인한 고통을 선계시를 통해 찾으려고 했다. 그녀는 하늘나라의 생활을 꿈꾸며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유선사로 지었다. 그녀가 평소에 지은 시에는 눈물과 외로움이 가득하지만, 유선사에는 불만도 눈물도 보이지 않는다. 유선사에서 하늘나라는 그녀의 고향이다. 그녀는 잠시 인간 세계에 내려와 살았던 선녀이고, 땅 위의 인간 세계는 그녀가 잠시 머문 곳이다.

허난설헌의 시는 선계를 배경으로 신선이 노니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주로 선인들이다. 그들은 목왕(穆王), 서왕모(西王母), 동비(東妃), 술랑(述郎), 서한부인(西漢夫人), 옥비(玉妃), 남악부인(南岳夫人) 등이다. 시의 내용은 선계의 아름다운 풍경, 여신선들의[14] 일과, 선계의 한가함, 신선의 결혼, 선계에서의 기다림과 외로움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허난설헌의 선계는 자유와 행복의 상징적 세계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유와 행복을 염원하지만 자신의 낭만적 환상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시에 드러냈다.

허난설헌의 문학에 나타난 도교적 선유는 암담한 현실로부터 초탈한 정신적 승화이다. 그녀의 초세속적 이상세계는 그녀만의 독특한 문학세계이다. 그녀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실감하고, 현실에서의 갈등과 사랑의 절망을 선계로 전이하고 있

13) 윤영주, 『한중 여성 시가 비교연구: 허난설헌 구숙진의 작품을 중심으로』, 江南大學校 碩士論文, 2007, 9면.

14) 많은 민족의 신화에서 우주를 창조하는 신이 남신이 아닌 여신임을 볼 수 있다. 송정화, 『중국 여신 연구』, 민음사, 2007, 79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그녀는 자신의 예리한 여성적 감수성 때문에 험난한 세속을 견디지 못하고 천상의 세계로 항해를 떠났다. 선계는 남녀 차별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굴레와 압박에서 해방된 장소이다. 그녀는 이러한 화려한 선계에서 노닐면서도 여전히 혼자였다. 그녀는 아름다운 선계에서도 여전히 인간 세상과 마찬가지로 고독했고 외로웠다. 그녀가 선계에서 성취하고 싶었던 것은 현실세계의 고통과 극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만든 상상력의 공간인 선계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랑이 원만하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과 못 다한 사랑을 이상세계에서 갈구하는 계기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자녀들이 죽은 것이다.[15] 이러한 두 가지 원인이 그녀가 유선사와 같은 시를 창작하는 강렬한 시적 동기를 유발시켰다.

15) 이숙희, 『허난설헌 시론』, 새문사, 1987, 29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도교사상과 한국문학

1. 도교의 발생과 사상

도교는 본래 자연발생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져 들어갈 경우에는 도교의 교조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다. 일부 학자들은 도교의 교조를 노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은 도교의 집단에서 도교를 종교로서의 의식체계를 갖추자는 의식이 생겨난 이후의 일이다.

도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갖고 도교라는 종교의 성립과정과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을 요약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도교는 고대의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신선설을 그 중심에 두고, 거기에다 도가, 역리, 음양, 오행, 참위, 의술, 점성 등에 무술적인 신앙을 보태고, 그것이 불교의 체재와 조직을 모방해서 뭉뚱그려진 종교이다. 도교는 불로장생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교이다.[16]

> 西紀前 3世紀 무렵에 중국에서는 神仙說이 생겨났다. 이 神仙說은 본래 중국 古代에 있었던 각지의 山岳신앙과 깊은 起源的인 관계가 있고 또 道家의 至人·眞人·神人 등에 부친 長壽寓言을 사실같이 다루는 데서 그 내용이 풍부해졌다. 이러한 神仙說에 중국 종교의 原初的인 형태인 巫術的인 신앙·각종의 呪術·自然信仰 등이 혼합되어서, 人力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神秘力을 驅使하는 것으로 알려진 方術이 성립되었다. 秦始皇帝와 漢武帝 같은 절대적인 君權을 장악했던 帝王들도 方術을 行使하는 方士들을 측근에 끌어들이기까지 되어 方術은 上層社會에 굳게 뿌리 박게 되었다. 한편 神仙說이나 方術은 호소할 곳 없는 일반 백성들의 마음도 사로잡아 그 宗敎的인 功能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갔다. 前漢 末頃에는 傳說上의 임금인 黃帝와 『道德經』의 著者로 전해지던 老子가 超人的인 존재로 생각되고 神仙으로 꼽혀져 黃老信仰이 擡頭했다. 方士들의 創作的인 선전과 讖緯說의 유행이 그러한 黃老信仰을 加熱시켰다. 讖緯說에서는 黃老가 神에 가까운 존재로 다루어졌고 讖緯書에는 西王母·太乙·不老思想·符籍 등 道敎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에 관한 記述이 보인다. 神仙方術과 讖緯思想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神仙方術이, 내용이 調整 擴

16) 차주환, 『韓國道敎思想硏究』, 서울대학교출판사, 1989, 22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大되고 새로 들어온 宗教인 불교의 영향을 받아 道教로 概括되는 한 종교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道教는 4世紀 이후에 이르러 불교의 체재와 組織을 모방하고 佛法의 展開方式 등을 받아들여 教理의 체계화와 宗教體裁의 整備를 도모하게 되었다.[17]

위의 기록을 보면, 도교는 사상, 교리, 기술, 사회, 교단, 신앙대상 및 신앙의례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종교복합체이다. 그것은 중국의 역사와 풍토, 지역적 조건에서 정치와 사회, 문학 등과 관련되면서 생활문화를 기초로 발생한 종교이다. 그래서 중국민족 고유의 종교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18] 도교는 종교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학문, 기술을 민중의 입장에서 밝히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도교는 민중도교와 교회도교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 민중도교는 농민이나 민중일반의 신앙과 생활신조, 그리고 그것에 의해 조직된 집단이나 결사를 말한다. 이러한 민중도교는 후한 말에 태동하여, 송나라 시대 이후의 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하면서 유교나 불교 등과의 상호소통 관계를 유지한다.

한편, 교회도교는 국가나 왕조에 의해 공인된 도교의 교단이나 교파이다. 교회도교는 5세기에 구겸지가 자신을 신천사도라고 칭하면서 시작되었다. 교회도교는 전국시대의 신선학에 기원을 두었다. 이러한 사상적 근원은 상구 시대의 무주 문화와 은주 시대의 귀신숭배사상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도교의 사상은 아주 복잡하지만 그 사상의 기원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계통의 사상이 존재한다. 첫째는 고대 사회의 귀신숭배문화(무주 문화)이다. 둘째는 전국 시대 이래의 신선과 방술사상이다. 셋째는 노자의 도교사상이다. 이러한 세 가지 계통의 사상은 하나로 융합되어 도교라는 사상 체계를 이뤘다.[19]

도교사상은 중국 고대 남방사상을 대표하며,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발달한 사상체계이다. 도교사상은 도가와 도교의 핵심사상이 통합된 사상이다. 도교는 신선사상을 중심사상으로 하지만, 도가의 노자를 시조로 표방하여 『道德經』을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으므로 도가와 도교를 분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도교를 종교로 보

17) 차주환, 앞의 책, 22-24면.
18) 홍성헌, 「李白 詩의 道教思想 研究」』,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7면.
19) 위의 논문, 27-29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데 반하여 도가는 철학사상으로 본다. 도교의 사상은 노자에서 시작되어 양주, 열자 등을 거쳐 장자에 의해 집대성 되었다.[20]

노자의 기본사상은 도(道)이다.[21] 노자에 따르면, 도란 바로 우주만물의 생성의 본원이며, 천지만물이 사물인 것과는 다르다. 도의 작용은 의지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단지 스스로 존재할 뿐이다. 사물은 유(有)라고 말할 수 있다. 도는 사물이 아니므로 무(無)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도는 천지만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도는 유와 무가 통합된 단일체이다. 도는 유와 무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양상을 가진다. 노자는 "道에서 하나가 생기고, 하나에서 둘이 생기고, 둘에서 셋이 생기고, 셋에서 萬物이 생긴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三生萬物.)[22]라고 하였다. 또한, "천지만물은 有에서 생기고, 有는 無에서 생긴다."(天地萬物生於有,有生於無)[23] 노자의 도일원론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무신론적인 철학체계이다. 이 때문에 후대의 종교학자들은 천명론을 반대할 때에 이러한 사상을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이용했다.[24]

장자는 노자의 도가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이다. 장자의 도가사상에서 근원적 실재는 도이다. 도는 천지만물의 생성의 시원적 원리이다. 사물이 있으면 도는 존재한다. 도는 어디든지 존재한다. 도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존재하고 시작도 끝도 없다. 천지만물은 모두 도에 의지하여 생성과 소멸을 영원히 지속한다. 도의 작용은 자연적이다. 장자는 자연을 "無爲의 원칙으로써 행하는 것이 하늘(天)이다. (無爲爲之之謂天.)"[25] "하늘(天)이란 본유적인 것이고, 인위(人)란 후천적인 것이다."(天在內, 人在外.)[26]라고 말한다.[27]

도는 천지만물의 생성원리이다. 이 원리는 바로 만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이 스스로 생성, 성장, 훼손, 소멸하는 것을 도라고 말할 수 있고, 만물이 자생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

20) 홍성헌, 앞의 논문, 33면.
21) 위의 논문, 34면.
22) 老子, 『道德經』, 第42章.
23) 老子, 『道德經』, 第43章.
24) 위의 논문, 35면.
25) 莊子, 『莊子』, 外篇, 天地 第十二.
26) 莊子, 『莊子』, 外篇, 秋水 第十七.
27) 홍성헌, 앞의 논문, 38-39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도가학파를 형성하여 중국에 유교 다음 가는 영향을 미쳤으며, 유교학파와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학파로 발전하였다.

또한 서한초기에는 황로학(黃老學)이 아주 성행하였다. 황로에서 황은 황제를 가리키고 노는 노자를 지칭한다. 황로학의 핵심은 “고요하게 있으면서 아무런 작위도 하지 않는 것(淸淨無爲)”이다. 서한 중기에 유안이 주도적으로 편집한 『淮南子』는 도교사상을 기초로 각 학파의 사상을 융합하여 방대한 사상체계를 설명했다. 하지만 오직 유가의 학술만을 존중한다는 독존유술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학이 성행하고 도교사상은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28]

동한시대에는 경학이 쇠퇴하고 도학이 다시 융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한말기에 접어들어 도학은 도교로 변모했다. 위진시대에는 도학이 현학으로 발전해서 자연을 숭상하고 정신적 자유와 사상의 해방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도교는 의학, 화학, 기공 등과 결합하여 아주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잉태했다. 그 결과로 당나라시대에는 도교가 유교나 불교보다 사상적으로 더 높은 대접을 받게 되었다.

2. 한국문학에서의 도교사상

도교사상은 중국에서 당송시대에 유교와 나란히 쌍벽을 이루면서 발전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도교가 국가적인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다. 유교는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발전을 했지만, 도교는 국가의 비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교는 일부 귀족층에서만 신봉하였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고려시대에 불교는 국교였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많은 사찰이 세워졌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신봉하여 전국에 향교가 많이 세워졌다. 조선시대에 도교는 궁궐에 소격서를 세워 겨우 도교사상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이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도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국교로 성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교사상이 한국문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도교사상은 전반적으로 모든 고전문학의 영역에 유입되어 하나의 독특한 사상체계로 그 진면목을 드러냈다. 도교사상은 특히, 가장

28) 홍성헌, 위의 논문, 40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평민적이라는 판소리에도 희극미와 함께 어울어져 독특한 문학적 정서를 구현했다. 이러한 이유는 도교가 고전문학분야에 종교체재나 사상을 유입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한 측면도 있다. 일반 대중은 도교를 종교로 인식하지 않고 구복신앙의 대상이나, 연연장생의 희원을 위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더욱이 도교는 인간이 갖는 원초적 감정에 잘 부합하여 다른 종교보다 인간적인 면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도교는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고전문학과 그 맥이 닿았다. 그래서 도교는 고전문학에 종교적 믿음이 아닌 인간의 삶의 일부로서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적 세계에 대한 제재를 제공했다.

도교사상은 고전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학분야는 주로 설화, 시가, 소설, 한문학이다. 도교사상은 이 분야에서 주제의 확장을 시도하거나, 개별 작품의 문학적 구상성을 체계화하였다. 도교와 도인은 특히 서민 중심의 소설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시대 고소설의 배경과 사상에서 도교와 무관한 작품은 거의 없다. <홍길동전>의 작품에서도 도교적인 색채는 나타난다. 홍길동이 신출귀몰하고 나중에는 멀리 나가서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도교와 한국문학의 상관성을 이야기하자면 두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순수한 노자 중심의 영향과 다른 하나는 기복 위주의 종교적 입장의 영향이다. 한국의 시가는 한시이든 국문시가이든 전자의 영향 곧 순수한 노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 상당하다. 그러나 소설은 기복종교인 도교로서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는 시가는 지식계급인 사대부 중심이고, 소설은 주로 피지배 계층인 서민들이 위주가 되었던 문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노자 중심의 사상을 도가사상이라 이르고, 기복이 위주인 종교로서는 도교라고 나누어 구분하기도 한다. 허난설헌의 작품에서는 이와 다르게 도가사상과 도교사상이 주를 이루면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허난설헌의 시와 도교

허난설헌은 상상력이 부여한 공상 또는 환상을 기반으로 선계로의 기나긴 여정을 시의 핵심 제재로 사용한다. 그녀는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선계에 대한 환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녀가 시에 선계를 묘사한 것은 그 당시 사회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도교의 영향력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도가사상의 환상을 노래한 선계문학은 그녀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담론이었다. 그녀는 신화의 전도된 형식으로 사용된 도교의 신선사상을 시의 소재로 사용하여 자신의 외부적인 삶과 내면의 고통을 신선세계의 환상세계로 승화시킨다.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세계를 상상력을 사용하여 「유선시」로 엮어낸다.

1. 허난설헌의 「유선시」

「유선(遊仙)」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 시제로써, 위진(魏晉)시대에서부터 사용되는 용어이다. 유선은 속세를 벗어나 선경에서 노니는 것을 의미한다. 신선은 도교에서 수련을 통해 득도한 사람으로, 장생불사하며 신인(神人) 또는 선인(仙人)이라고 불렀다. 전국(戰國)시대에서부터 진한(秦漢)시대까지 장생불사를 추구한 많은 방사(方士)들이 출현해서 신선가(神仙家) 혹은, 방선도(方仙道)를 형성했다. 방선도는 진시황과 한무제 시기에 아주 발달했다. 이시기에 아주 유명한 방사(方士)들이 많이 출현했다. 그리고 그들은 발해(渤海) 지역에 봉래(蓬萊)와 방장(方丈), 영주(瀛州)라는 세 개의 신산(神山)이 있다는 신화를 만들었다.

동한(東漢) 중엽에 형성된 도교는 수도를 통해 신선이 되는 것을 핵심사상이라 한다. 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정한 수련을 거쳐 장생불사와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위진(魏晉)시기에 도교의 신선 세계는 하나의 완전한 체계를 갖췄으며, 신선관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신선 사상은 위진시대의 문학작품의 창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다. 그래서 신선세계는 시의 핵심주제가 되어 「유선시」도 유행하게 되었다.

삼국(三國)시기에 위나라의 조식(曹植: 192-232, 字子建)은 조조(曹操)의 셋째 아들이며, 문제(文帝)인 조비(曹丕)의 동생이다. 조식은 어렸을 때에 아주 총명하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글재주가 있어서 아버지 조조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다. 형 조비가 황제에 오른 이후에, 조식은 황제의 박해를 받고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가 41세로 세상을 떠났다. 조식은 '유선'이라는 시의 제재를 사용하여 현실의 불만과 자유에의 갈망을 시로 노래했다.

그 이후에 '유선'은 시의 소재로 자리잡게 되었다. 진나라 시대의 시인 곽박(郭璞, 276-324)은 「유선시」의 시조이다. 곽박의 「유선시」는 '열선지취(列仙之趣)'의 오래되고 상투적인 틀을 벗어나, 선계의 허무하고 아련한 정경을 빌려와 인생의 번민과 고통을 묘사했다. 이는 동진(東晉) 시단에 새로운 시 세계를 열고 새로운 품격을 수립하였다.

위진남북 시대와 수(隋)나라 시기에 '유선'류의 시의 형식은 모두 오언시이다. 당나라 시대에도 「유선시」는 여전히 쇠퇴하지 않고 유행을 했다. 이는 당나라 통치자들이 도교를 중시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나라 시대에 시인들은 <보허사>를 시의 제목으로 즐겨 사용했다. <보허사>는 내용에 있어서 「유선시」와 비슷하여 유선류에 속한다. 당나라 시대의 「유선시」중 가장 유명한 것은 조당(曹唐)의 「소유선시(小遊仙詩」이다. 이는 선인(仙人)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것으로, 매수 마다 제목이 있다. 당나라의 「유선시」는 모두 오언고체(五言古體)이었다. 백거이(白居易)와 사공도(司空圖)는 칠언절구체(七言 絶句體)를 「유선시」의 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후부터 「유선시」는 칠언절구를 「유선시」의 기본형식으로 사용했다. 송인(宋人) 홍매(洪邁)가 편찬한 『만수당인절구(萬首唐人絶句)』 제35권에는 「소유선시(小遊仙詩)」 98수가 실려 있다. 그 이후에 창작된 「유선시」는 대부분 칠언절구를 사용하고 있다.

허난설헌의 「遊仙詞」는 칠언절구로 된 87수의 연작시(連作詩)이다. 「遊仙詞」는 허균이 공주목사로 재직하던 1608년 4월에 여동생 허난설헌의 작품을 모아서 목판본 『난설헌집』으로 간행했다. 「遊仙詞」는 2,436에 이르는 선시어(仙詩語)로 묘사한 대작이다. 허난설헌은 이 작품에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과 이별의 슬픔을 꿈속에서 선녀가 되어 선계에서 성취하는 것으로 노래한다.

허난설헌은 현실세계의 고통을 영원히 행복한 순간으로 전이하는 매개물로 선계를 사용한다. 도교사상에 따르면, 대부분 현세에서 영웅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사후에 선계에서 신선이 된다. 신선세계는 현세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끝없는 자신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욕망을 꿈속에서 환상세계로 만들어 낸 현실을 초월한 상태이다. 이러한 신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의 분출이다.

도교의 불로장생 사상과 인간이 득도해서 신선이 된다는 신앙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인(神人)으로 숭배되는 단군의 창세신화도 이와 관련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고조선조는 다음과 같이 창세신화를 설명한다.

> 위서에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다.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국호를 조선이라 불렀다. 이것은 고와 같은 시대였다. 또 고기에 말했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늘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였는데, 환인이 환웅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산을 내려다봄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周)나라 호왕(虎王)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箕子)로 조선에 봉함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기었다가 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은둔하여 山神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 1908세였다.[29]

단군신화에 나오는 '신(神)'이나 '선(仙)'의 개념은 후세의 한국인들에게 장수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선사상은 허난설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허균은 『학산초담(鶴山樵談)』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 누님이 <步虛詞>를 지었다. 이 시들은 劉夢得(劉錫)의 체를 본받았지만, 오히려 그보다도 맑고 뛰어났다. 또한<遊仙詞>백 편을 지었는데. 모두 郭景純의 남긴 뜻을 이어받았지만, 曹堯賓과 같은 이들이 따라오지 못하였다. 작은 형님과 이익지도 모의해서 지었지만, 누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누님은 참으로 하늘선녀의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30]

---

29) 一然, 『三國遺事』권1, 敎文社, 1995, 34-35면.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檀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昔有桓因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御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爲朝鮮 檀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30) 허균,『허균전집』『鶴山樵談』,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2, 362-363면. "效劉夢得而淸絶過之遊仙詞百篇皆郭景純遺意而曹堯賓輩莫及焉仲氏及李益之皆擬作而率不出其藩籬姊氏可謂天仙之才.")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허난설헌은 <유선사>에서 아름답고 환상적인 신선세계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린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었던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공간에서 고통의 몸부림을 선계에서 노니는 것으로 형상화한다. 그녀는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현세가 아닌 천상세계로 확장해서 신선세계를 창조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계에서 노니는 것을 꿈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그녀가 신선들이 노니는 곳에서 놀면서 선인과 교유하고, 신선세계를 유람하는 것을 갈망하는 자신의 소망을 작품에 드러낸 것이다.

2. 선계를 향한 꿈의 이미지

시인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시어라는 언어로 다양하게 시에 재현한다. 시인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인식된 의식세계를 재현한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의식이 본능적으로 미학적 현상으로 표출될 때에 고독의 정한이나 나르시시즘의 행위로 표출된다.[31]

또한 시인의 무의식의 세계는 꿈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무의식 세계의 꿈은 행복한 꿈이거나 불행한 꿈일 수도 있고, 형이상학적이거나 형이하학적인 꿈일 수도 있다. 허난설헌은 꿈 이미지를 자신의 작품에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그녀는 시의 화자로 등장하여 꿈을 꾸면서 꿈의 세계를 신선들이 살고 있는 봉래산까지 확장한다. 그녀는 꿈의 장소를 중국까지 확장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꿈 이미지는 그녀가 어린시절에 읽었던 다양한 문학작품의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그녀의 시에 꿈 이미지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感遇>의 시를 음미해 보자.

<感遇>

夜夢登蓬萊　어젯밤 꿈에 봉래산에 올라
足躡葛陂龍　갈파의 용을 맨발로 탔네
仙人綠玉杖　신선께서 파란 옥지팡이를 짚고

31) 허미자, 「韓國女流詩文學硏究」, 박논, 1979, 18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邀我芙蓉峯　부용동에서 나를 맞아 주셨네
下視東海水　아래로 동해물을 내려다보니
澹然若一杯　한 잔의 물처럼 고요히 보였지
花下鳳吹笙　꽃 아래서 봉황이 피리를 불고
月照黃金罍　달빛이 황금 술항아리를 비춰주었지[32]

이 시는 허난설헌이 자신의 내면세계 즉 의식세계에서 갈망하던 소망이 무의식세계의 꿈으로 분출된 것을 노래한 것이다. 이 시에서 봉래산은 발해지역에 있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삼신산의 하나이다. 시에서 화자는 현실세계에서 신선들이 살고 있는 이상세계로 변형되어 가는 매개물로 “용”이라는 상상적인 이미지를 이용한다. 그녀가 용을 타고 신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현실세계를 내려다본 세상은 “한 잔의 물”처럼 고요한 세상이었다. 이러한 신선들이 살고 있는 신선세계는 “봉황이 피리를 불고,” “황금 술 항아리”에 술이 가득 차 있는 풍요와 행복이 넘쳐나는 세계이다.

허난설헌은 이 시에서 꿈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실세계의 고통과 죽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반어적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을 꿈이라는 매개물을 사용하여 시에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望仙謠>를 음미해 보자.

<望仙謠>

瓊花風軟飛靑鳥　구슬꽃 산들바람 속에 파랑새가 날더니
王母麟車向蓬島　서왕모[33]는 기린 수레 타고 봉래섬으로 가시네
蘭旌蕙帔白鳳駕　난초 깃발 꽃배자에다 흰 봉황을 타고
笑倚紅闌拾瑤草　웃으며 난간에 기대 요초를 뜯네
天風吹擘翠霓裳　푸른 무지개 치마가 바람에 날리니
玉環瓊佩聲丁當　옥고리와 노리계가 쟁그랑 소리를 내며 부딪치네

32) 허경진,『許蘭雪軒』, 평민사, 1999, 19면.
33) 서왕모가 한국에서는 <태평광기>로 번역되어 보급되면서 신선사상을 꽃피우는데 난설헌의 <유선사>가 중심이 된다. 서왕모는 난설헌에게는 조물주와 같은 창조신 선도를 지닌 신령한 여신으로 비춰진다. 김명희 . 박현숙저,『조선시대 여성 한문학』, 이회, 2005, 134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素娥兩兩鼓瑤瑟　달나라 선녀들은 쌍쌍히 거문고를 뜯고
三花珠樹春雲香　계수나무 위에는 봄구름이 향그러워라
平明宴罷芙蓉閣　동틀 무렵에야 부용각 잔치가 끝나
碧海靑童乘白鶴　푸른 옷 입은 동자는 흰 학을 타고 바다를 건너네
露濕銀河曉星落　붉은 퉁소 소리에 오색 노을이 걷히자
露濕銀河曉星落　이슬 젖은 은하수에 새벽별이 지네[34]

이 시는 허난설헌이 신선들이 살고 있는 “봉래섬” “부용각”에서 열린 신세세계의 잔치를 노래한 시이다. 이 시에서 시의 화자는 “서왕모”[35]을 포함해서 다양한 신선들이 참석한 잔치가 벌어지는 광경을 통해서 신선세계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잔치에는 곤륜산에 살고 있는 모든 신선의 어머니인 서왕모도 참석한다. 서왕모는 “흰 봉황을 타고” 구슬같이 아름다운 풀을 옥지(玉芝)로 이것을 먹으면 장생불사(長生不死)한다고 하는 “요초”를 뜯어서 모으고 있다. 이때에 바람이 부니 서왕모의 “푸른 무지개 치마가 날리고” “옥고리와 노리계”가 “쟁그랑 소리”를 내고 있다. 주변에서는 “달나라 선녀들”이 거문고를 뜯으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이 잔치는 “동틀 무렵”이 되니 끝나고 잔치에 참석한 모든 신선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허난설헌은 이 시에서 여신선 서왕모와 자신을 대비시켜 융합시키고 있다. 그녀가 서왕모가 되는 것은 현실세계에게서는 불가능하지만 무의식의 세계인 꿈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그녀는 서왕모와 같은 신선의 삶을 현실세계에서는 성취할 수 없지만 꿈의 세계에서 자신의 이상세계로 실현시키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이상세계가 현실세계에서 실현될 수 없는 슬픔을 “이슬 젖은 은하수”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四時詞 夏>를 음미해 보자.

---

34)『許蘭雪軒』, 39면.

35) 서왕모의 궁전은 곤륜산(崑崙山) 꼭대기에 있다. 그곳은 천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간이 쉽게 길을 더듬어 오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궁전 왼쪽으로는 요지(瑤池)라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취수(翠水), 산밑에는 약수(弱水)라는 강이 흐르는데, 수만 미터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친다고 한다. 서왕모가 사는 궁전은 대단히 넓고 크며, 황금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눈부시게 아름답다. 서왕모는 절세 미녀로 알려져 있다. 크게 틀어올린 머리 위에 화려한 관을 쓰고 있으며, 금빛 나는 비단옷에 봉황을 수놓은 가죽신을 신고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33772&cid=50765&categoryId=5077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四時詞 夏>

槐陰滿地花陰薄　느티나무 그늘이 뜨락에 깔리고 꽃그늘 옅은데
玉簟銀床敞珠閣　대자리 평상에 누각이 시원하네
白苧衣裳汗凝珠　새하얀 모시 적삼엔 구슬 같은 땀방울 엉켰고
呼風羅扇搖羅幕　부채를 부치니 비단 휘장이 하늘거리네
瑤階開盡石榴花　계단의 석류꽃은 피었다가 모두 졌는데
日轉華簷簾影斜　햇살이 추녀로 옮겨가면서 발그림자도 비꼈네
雕梁晝永燕引雛　대들보에 낮이 길어 제비는 새끼와 놀고
藥欄無人蜂報衙　약초밭 울타리엔 사람이 없어 벌이 장을 보네
刺繡慵來午眠重　수놓다가 지겨워 낮잠을 못 이기고
錦茵敲落釵頭鳳　비단방석에 쓰러지며 봉황비녀를 떨구나
額上鵝黃膩睡痕　이마 위에 땀방울을 잠 잔 자국이 끈적이는데
流鶯喚起江南夢　꾀꼬리 소리가 강남 꿈을 깨워 일으키네
南塘女伴木蘭舟　남쪽 연못의 벗들은 목란배를 타고
采采荷花歸渡頭　연꽃을 따서 나룻터로 돌아오네
輕橈齊唱采菱曲　천천히 노를 저으며 <채릉곡>[36]을 부르자
驚起波間雙白鷗　물결 사이 갈매기 한 쌍이 놀라서 날아가네[37]

사람들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더위를 피하려고 나무 그늘아래에 있는 누각의 평상에 자리를 잡고 한여름의 더위를 달랜다. 석류꽃들은 피웠다가 지고, 제비들은 다정스럽게 새끼하고 놀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제비들을 보고 더욱 외로움을 타게 된다. 화자는 한 여름의 더위에 지쳐 잠을 자다가 정답게 노니는 꾀꼬리 소리에 꿈을 깨고 만다. 꿈속에 그리던 강남의 꿈처럼 남쪽 연못에서는 사랑하는 벗들이 목란배를 타고 연꽃을 따서 나룻터로 돌아온다. 하지만 화자의 모습은 혼자된 외로움에 노래를 불러보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채릉곡을 부르자 갈매기 한 쌍이 놀라서 급히 날아간다. 허난설헌은 혼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꿈을 투영시켜 이처럼 노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秋>를 음미해 보자.

36) 남녀가 주고받은 가고인 악부체의 하나이다. 채련곡과 더불어 남녀 상사를 노래했다.
37)『許蘭雪軒』, 45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秋>

紗廚寒逼殘宵永　비단 장막으로 추위가 스며들고 아직도 밤이 길게 남았는데
露下虛庭玉屛冷　텅 빈 뜨락에 이슬이 내려 병풍이 더욱 차가워라
井梧葉下秋無影　연꽃은 시들어도 밤새 향기가 퍼지는데
池荷粉褪夜有香　우물가 오동잎이 져서 가을 그림자가 없네
丁東玉漏響西風　물시계 소리만 똑똑 하늬바람에 들려오고
簾外霜多啼夕蟲　발 바깥에 서리가 짙게 내려 밤벌레 소리 구슬프구나
金刀翦下機中素　베틀에 감긴 무명을 가위로 잘라낸 뒤에
玉關夢斷羅帷空　옥문관 님의 꿈 깨니 비단 장막이 쓸쓸하네
裁作衣裳寄遠客　님의 옷 지어내어 먼 길에 부치려니
悄悄蘭燈明暗壁　등불이 쓸쓸하게 어두운 벽을 밝히네
含啼寫得一封書　울음을 삼키며 편지 한 장을 써서
驛使明朝發南陌　날이 밝으면 남쪽 길 가는 역인에게 부치려네
裁封已就步中庭　옷과 편지 봉해 놓고 뜨락을 거니노라니
耿耿銀河明曉星　반짝이는 은하수에 새벽별이 밝구나
寒衾轉輾不成寐　찬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잠도 못 이루는데
落月多情窺畫屛　지는 달만이 다정하게 병풍 속을 엿보네[38]

여성들은 가을이 오면 감성의 세계로 젖어든다. 이러한 가을을 상징하는 시어는 오동나무 잎과 가을 밤벌레 울음소리이다. 시에 화자는 마음이 외로워서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겨울 같은 추위를 느끼며 밤을 길게 느끼고 있다. 연꽃은 시들어도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가을이 깊어가는 밤에 화자는 베틀에 앉아 무명을 짜다가 “옥문관”에 머무르고 있는 임에 대한 꿈을 꾼다. 옥문관은 중국 안서(安西) 지방에서 고창(高昌, 하미)으로 가는 길에 있는 오아시스이다. 당나라 초기에 현장(玄奘)법사는 바로 이곳을 지나 고창으로 갔다고 한다. 화자는 이 시에 중국 북도의 관문인 옥문관에서 머물고 있는 임에 대한 꿈을 꾼 후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임을 위하여 무명 옷을 짓고, 더불어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를 알려주는 서신을 써서 다음날 “역인”에게 부치려고 한다. 이렇듯이 화자는 임을 그리면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세며 “찬 이불속에서 뒤척이며 잠도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

38)『許蘭雪軒』, 46-47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지는 달만이 다정하게 병풍 속을 엿보”고 있다.

허난설헌은 이 시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중국지방에 있는 옥문관에 대비시켜서 먼 여정을 떠난 임에 비유하여 자신의 고독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다만 창밖에 떠 있는 달만이 화자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듯이 “다정하게” 엿보고 있다.

다음으로 <效李義山體>를 음미해 보자.

<效李義山體>

鏡晴鸞休舞　가을에 먼지가 끼어 난새도 춤추지 않고
樑空燕不歸　빈 집이라서 제비도 돌아오지 않네
香殘蜀錦被　비단 이불엔 아직도 향기가 스며 있건만
淚濕越羅衣　옷자락에는 눈물 자국이 젖어 있네
楚夢迷蘭渚　님 그리는 단꿈은 물가에 헤매고
荊雲落粉闈　형주의 구름은 궁궐에 감도는데
西江今夜月　오늘 밤 서강의 저 달빛은
流影照金微　흘러 흘러서 임 계신 금미산에 비치네[39]

이 시는 허난설헌이 이의산의 체를 본받아 쓴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풍요로운 가을이 아닌 흉년이 든 가을에 자신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다. “난새”는 “전설 속에서 봉황(鳳凰)과 비슷한 새를 가리킨다. 『산해경(山海經)』「서산경(西山經)」에 따르면 이 새는 여상산(女床山)에 살고 있으며, 생김새는 꿩을 닮았고 오색 무늬가 있는데, 이 새가 나타나면 세상이 편안해진다고 했다.”[40] 온 세상이 어지러운 시대에 임은 집을 떠나지만 아직도 님이 머물던 “비단 이불엔 아직도 향기”가 남아 있다.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면서 옷자락에 “눈물자국”을 남기지만 다행스럽게도 꿈 속에서 임과 상봉하곤 한다. 임은 몽고지역 신강 알타이산에 있는 “금미산”에 머물고 있다. 임금이 계시는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남부에 위치한 형주의 궁궐에는 전란으로 먹구름이 끼어있다.

허난설헌은 이의산의 시를 모방하여 임이 금미산에서 흉노족과 전쟁을 벌이고

39) 『許蘭雪軒』, 52면.
4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70567&cid=41748&categoryId=4175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처절한 그리움을 이 시에 제시하고 있다. 오직 달빛만이 임과 화자의 만남을 연결해주는 매개물 역할을 하고 있다. 달은 화자와 임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서로를 향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이미지이다.

다음으로 <效沈亞之體>를 음미해 보자.

<效沈亞之體>

遲日明紅榭　긴 낮의 햇볕이 붉은 정자에 비치고
晴波斂碧潭　맑은 물결이 파란 못을 거둬가네
柳深鶯睍睆　버들 늘어져 꾀꼬리 소리 아름답고
花落燕呢喃　꽃이 지자 제비들 조잘대네
泥潤埋金屐　진흙길이 질어서 꽃신 묻히고
鬟低膩玉篸　머리채 숙이자 옥비녀 반짝이네
銀屛錦茵暖　병풍을 들러 비단요 따스한데
春色夢江南　봄빛 속에서 강남꿈을 꾸네[41]

이 시는 허난설헌이 당나라 시인 하현(下賢)의 시를 본받아 쓴 시이다. 이 시는 후원에 갇혀 사는 여인이 봄의 정경을 그린 시이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니 “버들 늘어져 꾀꼬리 소리 아름답고 / 꽃이 지자 제비들 조잘대고” 있다. 시의 화자는 봄이 다가오니 몇 해 전에 봄이 되면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고 떠난 임을 또다시 그리워하고 있다. 화자는 임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매일 사립문밖에 꽃신을 신고 머리에 옥비녀를 꽂고서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화자는 방에 “비단요”를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임이 돌아 올 순간을 기다리며 “강남꿈”을 꾸고 있다. 이 시에서 “강남꿈”은 화자가 임과 재회할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요컨대 허난설헌은 그녀가 보고픈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없기에 시에 꿈이라는 매개물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임과의 만남을 노래한다. 이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이별의 통한을 시에 제시한 것이다.

41)『許蘭雪軒』, 55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도교적 선세계의 이미지

허난설헌은 현실세계에서 만날 수 없는 상상속의 인물들을 그녀의 작품에 제시한다. 이러한 인물들은 옥황상제, 서왕모(西王母), 도사(道士) 소모군(小茅君) 등 선계의 인물들이다. 또한 그녀는 천수를 누렸다는 동방삭(東方朔)을 만난 후에, 그녀가 그리워하는 삼형제와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함께 선계에서 만난다. 그녀는 이들과 선계에서 노닐다가 어느덧 1만년이 지나가버린 것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난 듯이 아쉬워하는 것을 「유선시」에 재현한다.

허난설헌이 시에 사용하는 언어는 압축이나 응축된 시어가 아닌 드러냄의 시어이다. 그녀는 마음속의 슬픔이나 고독을 내면에 감추지만, 시에서 그녀는 더 이상 그러한 고통을 감추지 않고 다양한 시어로 발현한다. 이러한 그녀의 시어는 도교가 지닌 우주적이고 제의적인 성격의 실존적 차원을 보여준다. 그녀의 시어는 선계로의 여정을 떠나서 지상공간에 멈추지 않고 선녀처럼 날개를 펴고 마음껏 날듯이 그녀의 시세계를 펼쳐나간다. 이것은 그녀가 조선시대의 여성으로써 차별을 받으며 억눌린 감정을 그녀만의 시세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시는 시공을 초월하여 다층적 공간을 우주로까지 확장시켜 다른 여류시인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한다. 「유선시」는 한국과 중국에서 살았던 어떤 여류시인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녀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작품이다. 그녀는 「유선시」에서 종교적 상징을 통해 환상적 상상력을 작품에 드러내고 있다.

허난설헌의 시는 상상력이 부여한 공상 또는 환상을 기반으로 한 선계에로의 여정이 주요한 제재이다. 허난설헌의 시는 환상의 이미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허난설헌의 시에 제시된 도교의 환상 이미지는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시대에 선계문학은 백성들에게 도가사상의 영향으로 아주 친숙한 담론이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유교사상의 덕목으로 신분상 자유롭지 못한 세계에 살았다. 이 시대 여성들의 성(性)은 이분법적 측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억압된 사회구조의 틀에 얽매여 있었다.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울분과 억압을 분출할 공간이 필요했다. 이것은 허난설헌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허난설헌은 자신의 고독과 정한을 환상 이미지로 재현했다. 그녀의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그녀의 시에서 환상적 이미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환상적 이미지가 제시된 <夢作>를 음미해보자.

<夢作>

橫海靈鼇壓巨鼇　바다에 뻗은 봉우리가 큰 자리를 누르고
六龍晨吸九河濤　여섯 용이 새벽에 구강의 파도를 삼켰네
中天樓閣星辰近　하늘에 솟은 다락이라 별에 가깝고
上界煙霞日月高　노을 낀 하늘에는 해와 달이 높았네
金鼎滿盛丹井水　금솥에는 불로장생의 단정수가 가득하고
玉壇晴晒赤霜袍　옥단에는 날이 개어 붉은 도포를 말리고 있네
蓬萊鶴駕歸何晩　봉래산에 학 타고 가기가 어찌 이리 더딘지
一曲吹笙老碧桃　늙은 벽도 아래로 피리를 불며가네[42]

이 시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봉래산의 전경을 노래하면서 시의 화자가 그 곳으로 여정을 떠나는 삶을 노래한다. 봉래산은 "『사기(史記』의 <봉선서(封禪書)>에 따르면, 영주산(瀛州山)·방장산(方丈山)과 더불어 보하이(渤海) 해상에 있었다고 전하며, 세 산을 함께 3신산으로 부르는데, 그곳에 선인(仙人)이 살며 불사(不死)의 영약(靈藥)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 또한 그곳에서 사는 새와 짐승은 모두 빛깔이 희고, 금·은으로 지은 궁전이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같이 보이며, 가까이 다가가 보면 물밑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배는 바람에 이끌려 도저히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다고 한다."[43] 시의 화자는 바다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여섯 마리의 용이 파도를 삼키고 해와 달처럼 높은 곳에 위치한 신선들이 살고 있는 세계로 여정을 떠나고 있다. 그곳에는 금 솥에 인간에게 불로장생을 주는 단정수가 가득하고 구슬로 된 단에는 붉은 도포를 말리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신선들이 살고 있는 세계로의 여정을 "학"을 타고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현세에 머물러 있다.

봉우리가 바다에 까지 뻗고 상상속의 여섯 용은 파도를 삼킨다. 하늘에 떠있는 별

42)『許蘭雪軒』, 66-67면.
4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3410&cid=40942&categoryId=3338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은 다락에서 가깝고 해와 달은 더욱 높이 떠있다. 금으로 만든 솥에는 영원히 살 수있다는 단정수가 가득하구나. 이 단정수를 먹는 사람은 해와 달이 있는 높은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화자의 바램이다. 화자는 학을 타고 봉래산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학은 더디게 날아가고 있다. 화자는 촌금의 시간이나마 보고 싶은 이들에게 날아가고파 꿈에서나마 시를 짓고 있다.

허난설헌은 이 시에서 자신의 상상력의 세계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녀만의 상상력의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 시에서 암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步虛詞 1>를 음미해보자.

<步虛詞 1>

乘鸞夜下蓬萊島　난새를 타고 한밤중 봉래산에 내려서
閑輾麟車踏瑤草　기린수레 한가롭게 타고 향그런 풀잎을 밟네
海風吹折碧桃花　바닷바람이 불어와 벽도화를 꺾었는데
玉盤滿摘安期棗　옥소반에는 안기의 대추를 가득 따다 담았네[44)]

이 시에서 화자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봉래산에 학을 타고 도착했다. “난새”는 봉황과 비슷한 종류의 새로써 현실세계와 이상세계의 왕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물 역할을 한다. 앞의 시 <夢作>에서 화자는 “학”을 타고 봉래산으로 출발을 했지만 봉래산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 시에서처럼 “난새”로 바꿔 타고나서야 비로소 봉래산에 도착했다. 학과 난새는 현실세계와 이상세계 두 곳에 모두 살 수 있는 매개물로 시에 제시된 듯 하다. 이 시에서 화자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봉래산에 도착하여 “기린수레”를 타고 봉래산 주위를 구경하면서 “벽화도”를 꺾고, 옥쟁반에는 “대추”를 따서 담는 신선세계의 삶을 즐기고 있다.

허난설헌은 이 시에서부터 자신의 도교적 상상력의 세계가 완성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세계는 자신만의 환상적 공간으로써 현실세계의 고통과 그리움을 이상세계의 아름다운 신선세계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 것이다.

44)『許蘭雪軒』, 98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으로 <遊仙詞 1>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1>

千載瑤池別穆王　천년 고인 요지에서 목왕과 헤어져
暫敎靑鳥訪劉郞　파랑새로 하여금 유랑[45]을 찾게 하였네
平明上界笙簫返　밝아오는 하늘에서 피리소리 들려오니
侍女皆騎白鳳凰　시녀들은 모두들 흰 봉황을 탔구나[46]

이 시는 <유선사>의 첫 번째 시이다. 시의 화자는 곤륜산의 요지(瑤池)에서 서왕모가 주나라 목왕[47]을 초대하여 연 잔치에서 이들과 헤어지고 파랑새에게 유랑을 찾게 한다. "밝아오는 하늘"은 선계에서 열린 잔치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이 잔치가 끝나자 "시녀들은 모두들 흰 봉황"을 타고 자신들의 거처로 떠난다. 이 시에서 "유랑"은 오랜 시일이 지나 옛 고장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이는 화자도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허난설헌은 이 시에서 앞으로 자신이 노래할 시의 방향을 제시해 놓았다. 그녀는 앞으로 노래할 시가 현실세계가 아닌 이상세계 즉 신선들이 사는 선계를 노래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遊仙詞 2>를 음미해보자.

---

45) 유랑은 당(唐)나라 때의 시인 유우석(劉禹錫)의 고사(故事)에서 유래되었다. 가다가 되돌아온 사람을 전도유랑(前度劉郞)이라 한다.

46)『許蘭雪軒』, 132면.

47) 주(周)나라의 제5대 왕. 이름은 희만(姬滿)이고, 소왕(昭王)의 아들이다. 기원전 10세기경 사람으로,『사기(史記)』에는 50살 때 즉위해 55년 동안 재위했다고 되어 있다. 서방(西方)의 견융(犬戎)을 토벌하려다가 실패하여 제후의 이반을 초래하자 형벌을 정했는데, 이때부터 주나라의 덕이 쇠퇴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문명(金文銘)으로 보아 소왕과 목왕 시대에 법제가 정비되고 희성(姬姓)의 나라가 증가하여 영토가 확장되면서 주나라 국력이 확충되었다는 견해도 있다.『목천자전(穆天子傳)』은 목왕 때의 서유(西遊)의 이야기지만, 후세의 위작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01868&cid=42981&categoryId=42981
<요지연도(瑤池宴圖)>(8폭 병풍), 19세기, 비단에 채색, 각 폭 47.2×134.2㎝, 경기도박물관. 서왕모가 곤륜산의 요지(瑤池)에서 주나라 목왕의 방문을 받고 베푼 연회 장면을 그린 것이다. 3~5폭에 서왕모와 목왕의 연회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7~8폭에 연회에 초대받은 불보살과 신선들이 구름을 타거나 바다를 건너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9133&cid=46660&categoryId=4666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遊仙詞 2>

九霞裙幅六銖衣　아홉 폭 무지개 치마에 가벼운 저고리로
鶴背泠風紫府歸　학을 타고 찬바람 내며 하늘로 돌아오네
瑤海月明星漢落　요지엔 달빛이 밝고 은하수도 스러졌는데
玉簫聲裏鬻雲飛　옥퉁소 소리에 삼색 구름이 날아오르네[48]

이 시에서 화자는 "아홉 폭 무지개 치마에 가벼운 저고리"를 입고 신선세계로 되돌아 왔다. 이러한 신선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달빛이 밝고 은하수"도 고요하다. 다만 신선이 부는 퉁소소리에 세 가지 구름이 날아오르고 있다.

다음으로 <遊仙詞 5>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5>

焚香遙夜禮天壇　긴 밤에 향불 피우고 천단에 예를 올리는데
羽駕翻風鶴氅寒　수레 깃발 바람에 펄럭이고 학창의는 싸늘하네
淸磬響沈星月冷　해맑은 풍경 소리 은은하고 달빛은 차가운데
桂花煙露濕紅鸞　계수나무 꽃의 이슬이 붉은 난새를 적시네

이 시에서 화자는 잠이 오지 않은 긴 밤에 향불을 피우고 도교의 천단에 예를 올리면서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옥황상제에게 올리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선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흰빛에 소매가 넓고 옷 가장자리를 흑색으로 꾸민 학의 털로 짠 옷으로 선인(仙人)이 입는 "학창의"가 따뜻하지 않고 싸늘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더불어 봉황새와 닮은 "붉은 난새"가 이슬에 젖어 있다. 이 난새와 학은 인간이나 신선들이 인간세계와 신선들이 살고 있는 선계를 왕래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매개물이다.

다음으로 <遊仙詞 6>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6>

48)『許蘭雪軒』, 99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宴罷西壇星斗稀　서단에서 잔치 끝나자 북두칠성도 성글어지고
赤龍南去鶴東飛　붉은 용은 남으로 학은 동으로 날아가네
丹房玉女春眠重　단정한 방의 선녀는 봄 졸음에 겨워
斜倚紅闌曉未歸　난간에 기댄 채로 날 밝도록 돌아가지 않네[49]

이 시는 선계에서 잔치가 끝난 뒤의 전경을 제시하고 있다. 신선세계의 잔치는 “북두칠성도 성글어지고”처럼 밤에 시작되어 새벽에 끝났다. 잔치를 즐긴 선녀들은 잔치를 즐기고 나서 행복감에 취해 “날 밝도록 돌아가지” 않고 있다.

허난설헌은 이 시에서 선녀가 되어 현실세계의 날이 밝아오는데도 현실세계로 돌아오지 않고 선계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선계라는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고통을 모두 잊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 시에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遊仙詞 9>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9>

瓊樹玲瓏壓瑞煙　계수나무 영롱하고 상서로운 안개가 뒤덮였는데
玉鞭龍駕去朝天　채찍 든 신선이 용을 타고 조회하러 가네
紅雲塞路無人到　붉은 구름이 길을 막아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短尾靈龐藉草眠　꼬리 짧은 삽살개가 풀밭에 주저앉아 조네[50]

이 시에서 화자는 “계수나무 영롱하고 상서로운 안개”가 뒤덮인 곤륜산으로 “신선이 용”을 타고 서왕모를 만나러가는 장면을 묘사한다. 하지만 자신은 신선처럼 선계로 떠나고 싶지만 “붉은 구름”이 길을 막아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 화자는 “꼬리 짧은 삽살개가 풀밭에 주저앉아” 졸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소망이 성취되지 못한 것을 “삽살개”에 비유하고 있다. 상서로운 붉은 구름은 선계에 올라 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길을 막고, 선계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준다. 이는 성과 속의 경계를 구분 짓는 이미지이다.

49)『許蘭雪軒』, 135면.
50)『許蘭雪軒』, 137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으로 <遊仙詞 12>를 음미해보자. 이 시는 선계의 남녀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자유로운 만남을 즐기고 있는 시이다.

<遊仙詞 12>

香寒月冷夜沈沈　날씨 싸늘하고 달빛도 차가운데 밤은 캄캄해져
笑別嬌妃脫玉箴　웃으며 교비에게 하직하니 옥비녀를 뽑아 주시네
更把金鞭指歸路　다시금 금채찍 잡아 돌아갈 길을 가리키자
碧城西畔五雲深　벽성 서족 언덕에 오색구름 자욱하다[51]

이 시는 달빛도 차가운 깜깜한 밤에, 옥비녀를 뽑아 이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달빛은 벽성의 신선이 사는 푸른 아지랑이 집이다. 교비 여신이 살고 있는 벽성으로 찾아온 후 이별하는 장면이다. 이 시에서 허난설헌은 정표로 옥비녀를 뽑아준 교비처럼 자신도 사랑하는 임에게 옥비녀를 줘서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遊仙詞 36>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36>

粧鏡孤鸞怨上元　거울 속의 외로운 난새가 상원부인을 원망하고
雲車春暮下天門　봄 저무는데 구름 수레는 천문을 하직하네
封郎大是無情者　벼슬 얻어간 낭군은 참으로 무정한 사람이네
翠袖歸來積淚痕　푸른 소매에 눈물 자국만 풀 적셔서 돌아왔네[52]

이 시에서 화자는 상원부인처럼 선계에서 노닐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외로운 난새” 이미지에 대비시키고 있다. 상원부인은 “신화 속에 나오는 여선[女仙]으로, 이름은 아환(阿環)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서왕모(西王母)의 작은딸이자 삼천진황(三天眞皇)의 모친으로 상원(上元)에 임명되어 시방옥녀(十方玉

51)『許蘭雪軒』, 137면.
52)『許蘭雪軒』, 153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女)의 명부를 관장한다."[53] 그리고 "벼슬 얻어간 낭군"은 화자의 남편이다. 남편은 벼슬 얻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무정한 사람"이라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에 화자는 남편을 찾아가 보았지만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푸른 소매에 눈물 자국만"을 닦고 집으로 돌아 온 남편에 대한 원망을 시에 제시하고 있다.

허난설헌은 이 시에서 "외로운 난새"에 자신을 비유하여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천성적으로 무정한 사람이라서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것을 애닯아 하고 있다.

다음으로 <遊仙詞 55>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55>

海上寒風吹玉枝　바다의 찬바람이 구슬가지에 불어오는데
日斜玄圃看花時　현포에서 꽃구경하다 해가 저무네
紅龍錦襜黃金勒　붉은 용에다 비단 휘장과 황금 굴레
不是元君不得騎　선녀가 아니라면 탈 수 없겠지[54]

이 시에서 화자는 찬바람이 부는 날에 현포에 나가 꽃구경을 하다가 날이 저물었다. 화자는 선녀처럼 비단 휘장을 두르고 황금바퀴가 달린 붉은 용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싶지만 이 수레를 탈 수 없다. 이는 화자가 선녀가 아닌 인간임을 제시하는 시이다.

다음으로 <遊仙詞 56>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56>

蟠桃結子宴崑崙　반도 열리자 곤륜산에서 잔치를 베풀어
滿酌瓊醪勸上元　잔에 가득 술을 부어 상원부인께 권하네
催喚彩鸞東去疾　오색 난새 재촉하여 동쪽으로 바삐 가자
玉峯邀取老軒轅　옥봉의 늙은 현원씨가 맞아들이네[55]

5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19703&cid=50826&categoryId=50826
54)『許蘭雪軒』, 167면.
55)『許蘭雪軒』, 168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시는 복숭아가 열매를 맺는 시기에 옥황상제와 신선들이 사는 곤륜산에서 잔치가 베풀어 진 것을 서술한다. 화자는 술잔에 술을 부어 상원부인에게 권한다음 난새를 타고 동쪽으로 달려간다. 화자는 동쪽 지방의 옥봉에서 늙은 현원씨를 만난다.

허난설헌은 이 시에서 상원부인과 늙은 현원씨라는 남녀를 시에 제시한다. 이러한 남녀는 현실세계에서 자신과 남편과의 관계가 상원부인과 현원씨와 같은 삶이 되기를 동경한 것을 노래한 것이다. 허난설헌은 남편과의 불화로 불행한 가정생활을 했다. 허난설헌은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부부간의 화목이 깨지고 고통스런 가정생활을 했다고 일부 비평가들은 주장하지만, 허난설헌에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허난설헌은 이 시에서처럼 남편과 다시 다정한 부부가 되는 것을 제시했는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遊仙詞 61>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61>

綠章朝秦十重城 푸른 종이에 쓴 글을 옥황님께 아뢰고
飮鹿嵩溪訪叔卿 사슴에게 숭산의 물을 먹이려 숙경을 찾았네
宴罷紫薇人上鶴 자미궁에서 잔치 끝나 학을 타고 오르니
九天環佩月中聲 하늘의 노리개 소리가 달빛 속에 낭랑하네

이 시에서 화자는 선계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한 이후에 현실세계로 되돌아오는 광경을 시에 노래하고 있다. 옥황상제에게 바친 “푸른 종이에 쓴 글”은 유선시를 의미할 것이다. 화자는 옥황상제는 지내는 곤륜산에서 사슴에게 물을 먹이려 숭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간다. 이 시에서 사슴은 화자의 자녀를 상징한다. 화자는 자미궁에서 열린 잔치가 끝나니, 학을 타고 현실세계로 되돌아온다.

다음으로 <遊仙詞 63>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6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蓬萊歸路海千重　봉래산 가는 길은 바다가 천 겹이어서
五百年中一度逢　오백년 만에 한 번 건너갈 수가 있네
花下爲沽瓊液酒　꽃 아래서 경액주를 사 마시고 싶으니
莫敎靑竹化蒼龍　푸른 대를 푸른 용으로 변치 않게 하소서[56]

이 시에서 화자는 일반사람들이 신선들이 살고 있는 봉래산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사람들이 도교의 수행을 하여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오백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이다. 그래서 화자는 도교에서 인간의 수명을 길어지게 한다는 "경액주"를 마시고 싶어한다. 이러한 경액주는 푸른 대나무를 달여서 만든 술이므로 대나무가 푸른 용으로 변하면 인간은 경액주를 만들 수 없다. 허난설헌은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선계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이 시에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遊仙詞 65>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65>

簷鈴無語閉珠宮　추녀 끝에 풍경도 고요하고 대궐문을 닫혔는데
紫閣涼生玉簟風　돗자리에 바람 이니 다락이 서늘하네
孤鶴夜驚滄海月　한밤중 외로운 학은 바다에 뜬 달 보고 놀라는데
洞簫聲在綠雲中　퉁소 소리가 푸른 구름 속에 울려 퍼지네[57]

이 시는 선계에서 잔치가 끝난 후의 정경을 노래한 시이다. 선계의 잔치가 끝난 후에 궁중의 대궐문이 닫히고 주위의 풍경이 고요하다. 이러한 정경에서 "학은 바다에 뜬 달"을 보고 놀라며, "퉁소 소리가 푸른 구름" 속에서 울려 퍼진다. 이 시에서 "한 밤중 외로운 학"은 이전에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매개물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허난설헌 자신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변화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바다에 뜬 달을 보고" 놀라지만 퉁소소리가 울러퍼진다. 달은 화자와 임을 연결하는 이미지이며, 퉁소소리는 임이 곧 화자를 만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는 이미지이

56)『許蘭雪軒』, 172면.
57)『許蘭雪軒』, 173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다음으로 <遊仙詞 81>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81>

星冠霞佩好威儀　별 관과 노을 노리개가 위의도 훌륭해
三島仙官入奏時　삼신산 신선들이 임금께 아뢰러 들어가네
頻把金鞭打龍角　자주 채찍을 잡고 용의 뿔을 차며
爲嗔西去上天遲　서쪽 하늘에 오르는데 왜 이리 더디냐고 꾸짖네[58]

이 시에서 화자는 삼신산 신선들이 별이 수놓아진 관과 노리개가 달린 옷을 차려서 입고 옥황상제를 알현하러 가는 모습을 제시했다. 삼신산은 발해지역의 바다에 있는 신선세계이며, 옥황상제가 거주하는 곳은 중국 서쪽지역에 있는 곤륜산이다. 삼신산의 신선들은 서쪽 하늘에 있는 곤륜산으로 가기위하여 용의 뿔을 차며 용을 재촉하고 있다.

다음으로 <遊仙詞 84>를 음미해보자.

<遊仙詞 84>

珠露金飆上界秋　이슬에 회오리바람 불어 하늘나라에 가을이 되자
紫皇高宴五雲樓　옥황님이 오운루에서 큰 잔치를 벌이시네
霓裳一曲天風起　<예상우의곡>[59] 한 곡조에 바람이 일어나니
吹散仙香滿十洲　신선의 향기가 흩어져 온 세상에 가득해지네[60]

이 시는 선계에 가을이 되어 옥황상제가 “오운루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되어 그 은혜가 현실세계까지 퍼지는 것을 노래한 시이다. 이 잔치에서 <예상우의곡>이 울러퍼지자 선계에서부터 현실세계까지 “신선의 향기가 흩어져” 퍼져나

58)『許蘭雪軒』, 183면.
59)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와의 사랑을 속삭일 때 이곡을 연주 시켰다. 당나라 현종의 꿈에 월궁에서 노는데, 선녀들이 춤을 즐기면서 불렀다는 노래이다.
60)『許蘭雪軒』, 185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간다. 이 시에서 “향기”는 현실세계와 선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미지이다. 선계와 현실세계는 이 향기를 통해서 서로 한 개의 세상이 되기도 하고, 두 개의 세계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이 향기는 인간에게 행복을 전하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

요컨대 우리는 위의 시에서 허난설헌이 고통스런 현실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선계를 얼마나 지향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녀는 시를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독자들의 눈앞에 선계의 광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화려한 색상과 선계의 공간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시에 현실세계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시공을 초월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이고 있다. 허난설헌은 선계의 환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세와 선계사이를 왕래하면서 현실에서의 삶의 고통과 애절한 그리움을 이상세계인 선계로 이상화한다. 이러한 상상적 재현은 그녀가 시라는 매개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승화시키고 싶은 욕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결론

허난설헌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시인으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가족들의 질곡을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분석하여 독특한 시를 창작했다. 그녀는 문학적 상상력을 사용하여 가족과 자신의 삶을 시적 매개물로 사용하여 그것을 자신의 내면적 이상세계로 전이시켜 독창적인 시세계를 창조했다. 그녀는 시를 삶의 애환과 고독을 분출시키는 통로로 이용했다. 그녀의 작품은 조선보다는 중국에 널리 알려진 신지식인이었다. 그녀의 시가 이렇게 애송된 것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애환과 다른 여인들의 삶과 고통을 다채롭게 반영하는 시를 창작했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의 제 1장에서는 허난설헌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사를 고찰하였다. 제 2장에서는 그녀의 생애와 도교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녀는 온 가족이 학문에 정진하는 가풍을 가진 가정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으며, 시를 짓는 재주가 남달리 뛰어났다. 그녀는 열다섯의 나이로 안동김씨 서당 김성립에게 시집을 가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녀들이 모두 요절을 하는 고통을 겪었으며, 심지어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하였다. 또한 그녀는 친정이 몰락해서 오라버니와 동생이 귀양 가는 모습을 홀로 지켜보았다. 이러한 그녀의 삶과 삶의 고통은 그녀가 도교와 친숙하게 만들었다.

허난설헌은 부친 허엽의 영향으로 도교사상을 익혔다. 그녀는 아버지가 도교사상을 애호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신선도와 신선화를 수록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녀는 이러한 영향으로 신선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시로 노래할 수 있었다. 그녀의 시는 선계의 아름다운 풍경, 신선들의 놀음, 선계의 한가함, 신선의 결혼, 선계에서의 기다림과 외로움 등을 재현했다. 이러한 선계는 시에서 자유와 행복을 의미하는 상징적 세계이었다.

제 3장에서는 도교사상과 한국문학의 관련성을 설명했다. 도교는 고대의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신선설을 그 중심에 두고,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종교이었다. 그리고 도교는 조선시대의 고전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도교사상은 설화, 시가, 소설, 한문학에서 주제로 발현되었다. 도교사상은 다양한 고전문학 장르에서 주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확장시키고, 작품의 구성을 체계화했다. 도교와 도인은 서민 중심의 소설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시대 고소설은 작품의 배경과 주제를 도교사상으로 삼았다. 도교는 인간에게 종교적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적 세계에 대한 제재를 제공했다.

제 4장은 도교사상이 허난설헌의 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遊仙詞」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과 이별의 슬픔을 꿈속에서 선녀가 되어 선계에서 성취하는 것을 노래했다.「유선시」는 상상력이 부여한 환상을 기반으로 선계로의 기나긴 여정을 묘사했다. 그녀는 이 시에 선계에 대한 환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시에 도교의 신선사상을 시의 소재로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신선세계로 승화시켰다.

선계에 대한 꿈 이미지는 허난설헌이 시의 화자로 등장하여 신선들이 살고 있는 봉래산을 왕래했다. 이러한 꿈 이미지는 그녀가 자신의 의식세계에서 갈망하던 소망이 무의식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그녀는 현실세계의 고통과 죽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무의식이라는 꿈의 매개물로 시에 반영시켰다. 그녀는 이러한 매개물을 통해서 임을 만났다. 이렇듯 그녀의 선계이미지는 시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다층적 공간을 우주로까지 확장시켜 그녀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작품의 배경을 제공했다. 따라서 그녀는 시에 현실세계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이러한 선계의 환상적 이미지는 현실의 삶의 고통과 애절한 그리움을 이상세계인 선계로 이상화한 것이었다. 이는 그녀가 시라는 매개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승화시킨 것이었다.

요컨대 허난설헌은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애환을 선계라는 상상의 세계로 전이시켜 현실세계와 내세를 현재의 이 순간에 통합한 시인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작품구조는 현실에서 이상세계, 그리고 현실세계로 되돌아오는 순환적 구조를 사용하여 다층적 공간을 형성했다. 이 작품들에 제시된 그녀만의 독창적인 상상력의 세계는 미래에도 다양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단행본

老子,『道德經』

강혜선 옮김,『여성 한시 선집』, 문학동네, 2012.

김경수 역주,『老子譯註』, 문사철, 2010.

김명희,『허부인 난설헌, 시 새로읽기』, 이회문화사, 2002.

김명희,『許蘭雪軒의 文學』, 集文堂, 1987.

김명희・박현숙저,『조선시대 여성 한문학』, 이회, 2005.

김성남,『허난설헌 시 연구』, 소명, 2002.

김성남,『허난설헌: 시대를 앞서간 천재 여류시인』, 東門選, 2003.

金智勇,『歷代女流漢詩文選』, 大洋書籍, 1973.

金智勇,『한국의 女流漢詩』, 여강출판사, 1991.

김혜순,『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

노자 원전, 임수무 역해,『도덕경』, 계명대학교출판부, 2003.

박연옥,『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 오로라드림. 2009.

박영호,『許筠文學과 道敎思想』, 태학사, 1999.

朴三緖,『韓國文學과 道敎思想』, 國學資料院, 1998.

朴三緖,『韓國의 道敎思想과 文學敎育 硏究』, 國學資料院, 1996.

신하령・김태완,『도교』, 까치글방, 1999.

안대회,『한국가사연구』, 소명, 1999.

안동림 역주,『莊子』, 현암사, 2010.

앙리 마스페로 지음, 신하령, 김태완 공역,『도교』, 까치, 1998.

이능화,『조선여속고』, 한남서림, 1927.

이숙희,『허난설헌시론』, 새문사, 1998.

이종은,「韓國詩歌上의 道敎思想硏究」, 보성문화사, 1983.

송정화,『중국 여신 연구』, 민음사, 2007.

장정룡,『허난설헌 평전 불꽃같은 짧은 생애의 찬란한 시문학』, 새문사, 200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민 지음,『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조동일,『한국문학통사』 권2, 지식산업사, 1998.
조동일,『한국문학통사』 권3, 지식산업사, 1998.
韓國道敎思想硏究會 編,『도교문학연구』, 푸른사상, 2001.
韓國道敎思想硏究會 編,『道敎와 韓國文化』, 韓國道敎思想硏究會, 1988.
韓國道敎思想硏究會 編,『道敎와 韓國思想』, 아시아, 1994.
韓國道敎思想硏究會 編,『道敎의 韓國的 變容』, 아시아, 1996.
최준식,『도교란 무엇인가』, 민족, 1990.
최창록,『한국도교문학사』, 국학자료원, 1997.
허미자,『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허미자,『韓國女性文學硏究』, 태학사, 1996.
차주환,『韓國道敎思想硏究』, 서울대학교출판사, 1989.

2. 논문

곽선희,「許蘭雪軒의 遊仙詞 考察」,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9.
김경진,「許蘭雪軒의 遊仙詩에 나타난 幻想性 考察과 指導方案 硏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계숙,「許蘭雪軒 硏究: 漢詩를 中心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덕년,「許蘭雪軒의 詩에 나타난 色彩語 硏究」, 연세대학교, 2001.
김명희,「許蘭雪軒 詩文學硏究」, 東國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87.
김상남,「許蘭雪軒의 漢詩硏究」, 全南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1.
김영수,「許蘭雪軒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9.
金榮朱,「許蘭雪軒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金用淑,「許蘭雪軒의 꿈과 눈물」,『숙대학보』 2, 1956.
김인정,「許蘭雪軒의 漢詩 硏究 : 僞作是非및 作品 再解釋에 主眼하여」, 단국대학교, 200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종필,「許筠과 許蘭雪軒의 遊仙詩 比較硏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현정,「李淸照와 許蘭雪軒 比較 硏究」,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혜옥,「燕巖小說의 道敎思想的 考察」,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남병윤,「許蘭雪軒의 漢詩 硏究」, 啓明大學校 敎育碩士學位 論文, 1972.
박영호,「許筠 文學 硏究: 道敎思想을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1.
朴堯順,「許蘭雪軒과 閨怨歌攷」,『湖南文化硏究』 제 2집, 전남대호남문화연구소, 1964.
박윤자,「許蘭雪軒 詩文學 硏究 : 感興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박재완,「許蘭雪軒(1563-1589)과 梅窓(1573-1610) 漢詩 比較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朴鍾和,「許蘭雪攷」,『성균관大』, 성균誌, 1950.
서정혜,「許蘭雪軒考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1.
손찬식,「許蘭雪軒과 許少雪軒의 遊仙詞 比較 硏究」, 忠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유임순,「허난설헌 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4.
윤영주,「한중 여성 시가 비교연구: 허난설헌 구숙진의 작품을 중심으로」, 江南大學校 碩士論文, 2007.
이연신,「許蘭雪軒의 漢詩硏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9.
이숙희,「허난설헌의 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이종은,「한국시가상의 도교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8.
임현주,「난설헌 문학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장연숙,「허난설헌의 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0.
장인애,「허난설헌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장 진,「許蘭雪軒論」,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9.
정연봉,「許蘭雪軒 漢詩의 硏究」, 高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79.
최정은,「허난설헌 한시 연구 : 상처와 치유양상」, 국민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10.
차옥덕,「許蘭雪軒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최승옥,「許蘭雪軒의 漢詩 硏究」, 조선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0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영택,「한국민요에 나타난 도교사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7.

한성금,「許蘭雪軒 漢詩의 美學」,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홍성헌,「李白 詩의 道敎思想 硏究」,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Wang Li-Li,「許蘭雪軒과 許小雪軒의 游仙詞 比較 硏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